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농업 대전환 마중물 되게 최선을”

이철우 경북지사 '농업 대전환' 찾아 농업인들 격려, 발전방안 논의 문경에 공동영농시설 운영으로 소득의 획기적 증대 등 강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예천군 타작물 재배단지에서 농가차원의 과감한 작목 전환을 당부하고 있다. /경북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농업 대전환' 현장을 찾아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관계자들과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7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휴일도 없이 지난 5일 문경 영순면과 예천 지보면 등 지난달 선정된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을 둘러보고 시군 관계자와 참여 농가들과 정책구상을 논의했다.

예천 사업현장에는 김학동 예천군수, 이형식 도의원, 최병욱 예천군의회의장, 이상 등 30여명이 참석했고, 문경 현장에서는 김영길 문경부시장, 박영서 도의회 부의장, 황재용 문경시의회 의장, 시의원, 이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조성 현장에서는, 예천에는 스마트팜 등 첨단시설이 많은 만큼 군 차원의 시설유지 및 운영계획과 더불어 유입된 청년의 지역 정착방안 등에 대한 대비를 주문했다.

문경에는 공동영농시설 운영과 농가 지분참여 확대를 통한 소득의 획기적 증대를 강조하고 시설은실, 대

마 재배단지 등과 같은 부가 소득기반이 사업계획에 연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예천 혁신 농업타운은 첨단농업단지의 청년농과 인근 마을의 기존주민이 상생하는 모델로 첨단농업단지(15ha)에는 임대형스마트팜, 임대형수직농장 및 곤충양잠산업 거점단지 및 청년보급자리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문경 디지털 혁신농업타운은 소득 혁신형 모델로, 농가별 소규모로 분산해 경작하던 기존 비단지를 콩·양파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집적화하고 규모화하는데 필요한 공동영농시설장비와 청년 농부 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에 선정된 시군은 11월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도의 승인과정을 거쳐 내년 초에 착공하게 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농업 현장에서 “는 타작물 재배는 영농법인을 중심으로 집산화·규모화된 형태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이 좋은 수단이라며, 다양한 첨단시설과 공동영농간 융합, 청년농과 기존농간 상생협력이 위기의 농업과 농촌을 위한 획기적인 해결 수단일 수 있는 만큼,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이 농업 대전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 향토기업 후보자 신청 접수

부산시는 '2022년도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후보자를 오는 18일까지 신청 받는다.

부산시 향토기업은 고용 창출과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선 기업을 선발하는 제도로 현재 64개사가 선정돼 있다. 이들 기업에는 시 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시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부산시 내에 본사를 두고 30년이 경과 하였으며, 상시 종업원이 100명 이상,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접수 기간은 7일부터 18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부산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장성군 청년공동체 활성화 단체 모집

장성군이 오는 11일까지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참여할 청년 단체를 모집한다.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청년공동체의 활동 기반 조성 및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권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5명 이상이 포함된 팀·단체·법인으로 전체 구성원의 70% 이상이 청년이어야 참여 가능하다.

단 일회성 행사, 단순 친목, 영리 목적의 모임, 특정 종교 및 정당 관련 단체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중앙부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유사 지원사업 참여 단체도 해당되지 않는다. 총 5개 공동체를 선발하며, 결과는 이달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다.

/장성(전남)=양수영 기자



두바이 국제컨벤션전시센터에서 열린 '2022 두바이 화장품 미용 전시회' 모습. /전남도청

전남도, 이미용 산업 302만 弗 수출상담

'두바이 화장품 미용 전시회' 참가 이번 전시회에서 록바이오텍은 천연 한방 원료 화장품, (주)메사코사는 유기농 매화수 화장품, 브이케이프론티어(주)는 친환경 비건 화장품을 각각 출품했다.

전라남도는 최근 두바이 국제컨벤션전시센터에서 열린 '2022 두바이 화장품 미용 전시회'에 참가해 302만 달러 상당의 수출상담을 벌이는 등 국제시장 진출을 위한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밝혔다.

올해 27회째를 맞는 두바이 화장품 미용 전시회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가장 규모가 큰 국제 뷰티 전문 전시회로 25개 국 수출기업과 138개 국 바이어가 참가했다. 전남도는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와 함께 도내 이미용 수출기업 6개사가 참가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록바이오텍은 천연 한방 원료 화장품, (주)메사코사는 유기농 매화수 화장품, 브이케이프론티어(주)는 친환경 비건 화장품을 각각 출품했다. (주)호인인은 네일파츠제품과 젤네일, (주)비더블유코리아는 탈모예방 기기와 샴푸, (주)인코돈바이오텍은 피부트러블 개선 화장품을 출품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특히 전남도는 참가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박람회 기간 중 바이어를 기업 부스로 초청해 1대1 수출상담을 지원했다. 이번 박람회에 총 147회, 302만 달러의 수출상담을 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국내·외 우수기업·청년에 부산시, 일자리 연계 지원

10~12일 '부울경 청년 엑스포' 에어부산·닛산 등 105곳 참여

부산시는 부·울·경 우수기업 및 해외기업과 구직자 간 취업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12일 사흘간 벡스코 제1전시장 1홀에서 '희망이음-부·울·경 청년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에어부산, BNK부산은행 등 부·울·경 우수기업 32개사와 닛산자동차 등 해외기업 73개사(오프라인 43개사, 온라인 30개사)가 참여한다.

해외기업의 경우 사전신청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면접 진행을 통해 시스템 엔지니어, 회계·물류사무원 등 총 301명의 청년을 채용할 예정이다.

또 10~11일 양일간 해외 취업 전문가의 특강 및 상담이 벡스코 지하 1층 화상상담실에서 진행된다.

12일에는 해외기업을 초청하는 대

신, 청년에게 해외 취업 관련 생생한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 선배들의 국가별·직무별 멘토링도 열린다.

아울러 국내·외 기업 초청을 통한 일자리박람회 외에도 퍼스널컬러알아보기, 증명사진 촬영 등 청년 맞춤형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운영된다.

한편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박람회 in 부산' 내 특별관으로 운영되며, 시는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울·경 경제진흥원·일자리재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과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부산시 이윤재 청년산학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동남권 지역의 우수기업과 좋은 일자리가 많이 알려져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질길 바란다"라며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지역에 많은 청년이 모여들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주시 한우능력평가대회서 2관왕

경주시는 경주 한우가 '제25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전국한우협회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은 천북면 최삼호 농가가, 전국한우협회상은 천북면 전광식 농가가 수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한국종축개량협회·전국한우협회 주최, 한우능력평가대회 추진협의회 주관, 이번 대회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충북 음성축산물공판장에서 개최됐다. 전국 292마리 한우가 경합을 벌여 12마리만 부문별 수상 개체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경주 한우가 2개 부문에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경주(경북)=이상호 기자

전남 4개 시도 협력 해상교량 신설 추진

전라남도는 섬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만장기간 추진하지 못했던 지방도 4개소의 해상교량 신설을 위해 여수시,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등 4개 시군과 협력해 사업을 앞당겨 추진하게 됐다.

신설 추진하는 해상교량은 신안 장산도와 자라도, 완도 소안도와 구도, 여수 월호도와 금오도, 진도 의신면과 접도를 잇는 지방도 연도(連島)교량 4개소다. 총 사업비는 약 5280억

원이다. 그동안 지방도 정비사업은 도로관리청인 전남도의 순수 도비 100%로 추진하면서,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해상교량 개설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섬 주민의 숙원인 해상교량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전남도가 4개 시군과 협의를 거쳐, 각각 소요사업비의 50%를 부담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전남=양수영 기자

울릉군, 사계절 관광객 맞이 나서

'겨울왕국 한주살이' 등 출시 예정

울릉군(남한권 울릉군수)은 개항 이래 42만 관광객(최대 기록 갭신)을 맞이한 현재, 울릉도 접근성 향상(대형여객선 취항 등)에 따른 관광객 증가 예상으로 사계절 관광객 맞이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우선 여행객들에게 정확한 관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광지 이정표 정비', '울릉군 관광문화 홈페이지 개편'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광활성

화를 위한 '울릉도 스토리텔링 체험길 발굴'사업과 비수기였던 겨울철(12월~2월) 방문 여행객들을 위해 관내 관광업체 겨울철 영업 여부 조사 및 울릉도 겨울 문화체험 '겨울왕국 울릉 한주살이' 상품을 12월에 출시할 예정이며, 특히 2023년 '울릉도 겨울 눈 축제'를 개최하여 울릉도 겨울 관광의 우수성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이벤트들을 여행객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울릉(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